

# 資産評價와 利益測定理論에 관한 研究

高 成 孝

目 次	
I. 序 論	
II. 企業利益의 測定理論의 發展	
III. 經濟學的 價値概念의 優位性	3. 『에드와드스』와 『벨』의 利益測定理論
1. 經濟學的 利益概念	4. 豫測指標로서 現行活動利益
2. 經濟學的 價値概念의 優位性과 問題點	V. 利益測定理論의 評價와 折衷規則
IV. 企業利益의 測定理論	1. 利益測定理論의 評價
1. 利益測定과 資産評價	2. 折衷의 評價規則
2. 『퀵립스』의 增價利益	VI. 結 論

## I. 序 論

그 동안 서로 다른 見解를 가진 여러 學者들에 의해 會計理論을 革新·定立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利益測定과 資産評價의 關聯問題에 큰 比重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會計理論의 進歩는 利益概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 始發點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데 많은 學者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期間利益의 測定은 중심적인 會計問題로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見解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여러 利益概念의 상대적 長點과 그와 관련된 價値概念을 論議하는 많은 論文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혁신적인 理論들은 새로운 會計制度를 公式化하는데 意見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知的 探求의 주도적인 努力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급속한 會計環境의 變化에 따라서 傳統的 會計構造에서의 企業利益에 대한 會計情報은 본래의 意味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會計利益에서 實質的인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는 새로운 會計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利益은 본질적으로 經濟的 價値를 추구하는 實質利益(real income)이다. 「렘케」

(Lemke)는 “널리 인정되고 있는 經濟學的 價值概念은 概念的으로 流入될 未來現金흐름의 割引價値를 뜻하는 가장 進전한 資産價値의 測定概念이다.”<sup>1)</sup> 라고 했다. 이것은 결국 經濟學的 利益이 優位性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會計理論에서 實質利益에의 接近을 시도하는 새로운 會計裝置에 대한 많은 論議가 나타나고 있다. 즉 利益概念 및 利益測定·報告의 側面에서 傳統 會計利益의 短點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資産評價와 利益測定理論의 進歩에 대한 많은 論爭 가운데 「혼그렌」(Horgren)의 實現主義에 대한 折衷的 解釋과 「필립스」(Philips) 및 「에드워드스」와 「벨」(Edwards and Bell)의 利益測定論에서 資産의 折衷的 評價規則의 結合에 대한 論議를 分析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利益의 測定이 資産評價와 관련하여 어떻게 發展되어 왔으며, 經濟學的 價值概念의 優位性은 어디에 있고 그러한 價值概念에 따른 諸 利益測定理論을 고찰하였다. 특히 「혼그렌」, 「필립스」 그리고 「에드워드스」와 「벨」의 理論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II. 企業利益의 測定理論의 發展

會計學에서 企業利益은 원래 資産評價의 道具를 통하여 測定되었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損益計算書의 道具를 통하여 實現된 收益과 消費된 原價를 對應시킴으로써 測定되고 있다. 이러한 方法上的 變化가 企業形態의 發展에 따라 어떠한 過程을 거쳐왔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① 完全清算冒險企業 (completely liquidated venture) : 여기에서 모든 資産은 現金으로 販賣된다. 각 冒險事業 (venture) 으로부터 생긴 利益은 期初의 現金投資額과 期末의 總現金財産價를 비교하여 測定된다. 즉, 企業利益 = 現金增加額 + 所有者回收額 (Business Income =  $\Delta$  Cash + Owner's Withdrawals) 여기에서 資産評價의 問題는 없다. 즉 所有者의 관심은 利益에 있으며, 그 測定上的 問題는 없다.

② 部分的 清算冒險企業 (partially liquidated venture) : 여기에서 資産의 일부가 手中

1) Kenneth W. Lemke, "Asset Valuation and Income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966), p.33.

2) Emily Chen Chang, "Business Income in Accounting and Economic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2). pp.637~638.

에 남아있는 形態이다. 각 冒險事業으로부터 생긴 企業利益은 期初의 總資產價値와 期末의 總資產價値를 비교하여 測定된다. 즉 企業利益 = 總資產價値增加 + 所有者回收額 (Business Income =  $\Delta$  Net Worth + Owner's Withdrawals). 아직도 所有者의 관심은 利益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手中의 資產은 그 資產의 潛在的 市場價格에 의해 評價될 것이다.

③ 個人企業 (single proprietorship) : 여기에서 企業은 重複事業으로 표현된다. 企業이 一回基準으로 事業을 운영할 때, 資產은 潛在的 市場價格에 의해 評價될 것이다. 그리고 영속적인 繼續企業으로 운영될 때 原價主義에 의해 評價될 것이다. 각 期の 企業利益은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즉 企業利益 = 財産增加 + 所有者回收額 (Business Income = Proprietorship + Owner's Withdrawals). 原價에 의해 評價된 資產은 'net worth'란 用語보다 'proprietorship'의 用語가 더 적절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所有者의 관심은 利益에 중심을 두고 있다.

④ 大衆 所有企業 (large publicly-held corporation) : 大規模企業에서 所有와 經營은 分離되기 때문에 會計의 중심은 所有者의 觀點에서 經營者의 觀點으로 移行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所有者의 會計에서 實體會計 (entity accounting)로 移行을 말하는 것이다. 受託會計 (stewardship accounting)는 販賣로부터 생긴 利益을 가지고 客觀的 證據에 의해 經營成果의 達成에 대한 期間的 報告를 필요로 한다. 이와같이, 損益計算書의 道具를 통하여 實現된 收益과 消費된 原價를 對應한다는 것은 利益會計의 問題點에 대한 論理的이며 實際的인 解決策으로 생각된다. 즉, 企業利益 = 實現된 收益 - 消費된 原價 (Business Income = Revenue Realized - Costs Consumed). 여기에서 所有하고 있는 資產은 未消滅原價에 불과하다. 그리고 資產評價는 原價配分으로 대체된다. 현재 收益에 配分된 原價는 費用으로 損益計算書에 나타나고 配分되지 않고 남아있는 原價는 資產으로 貸借對照表에 나타난다. 損益計算書는 經營成果의 達成과 企業의 收益力測定 등에 가장 중요한 財務報告書로서 格상되고 있으며, 반면에 貸借對照表는 未完成된 作業의 表示 즉 未債却된 獲得價額을 표시하는 移行手段으로 格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企業實體에 대해 관심이 集中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株主들의 利害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와같이 現代會計學의 추세가 종래 貸借對照表 중심의 會計에서 損益計算書를 중심으로 한 動態的 會計理論으로 그 移行過程을 거쳐 發展하여 온 것은 利益強調의 會計思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會計思考하에서 利益測定은 實現主義의 解釋에 관한 問題와 資產評價와 관련된 많은 理論에 대한 論議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베드포드」(Bedford)의 利益決定論, 「필립스」의 增價利益, 「에드와드스」와 「벨」의 企業利益測定論, 「혼그렌」(Horpren)의 實現主義의 解釋, 그리고 최근 많은 學者들에 의해 論議되고 있는 現行價値會計 등 實質的인 會計情報에 接近을 시도한 많은 理論들이 있다.

### Ⅲ. 經濟學的 價値概念의 優位性

#### 1. 經濟學的 利益概念

經濟學에서 企業利益은 본래 源泉的 固定資本 및 運轉資本 (the fixed and circulating capital intact) 을 維持하는데 필요한 總收益과 總費用 사이의 差額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靜態經濟에 적절한 일종의 損益計算의 觀點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經濟學者들은 資本을 잠식하지 않고 (without encroaching upon capital) 配當에 寄與할 수 있는 極大值로 보아야 한다는 「 Hicks 」 (Hicks)의 定義에 동의하고 있다.

「 Hicks 」는 “어떤 사람의 利益은 週初와 週末에 동일한 富를 維持하면서 그 週동안에 消費할 수 있는 極大價値이다”<sup>3)</sup>라고 말하고 있다. 즉 個人의 利益은 期末의 富裕를 期初와 동일하게 維持하면서 그 期間을 통하여 消費할 수 있는 極大值를 말한다. 이러한 中心思想으로부터 우리는 企業利益에 대한 定義를 企業이 期末에 期初의 富를 동일하게 維持하면서 配當에 기여할 수 있는 極大額으로 推論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企業利益은 期待收益의 本質이나 源泉에 관계없이 그 企業에 적용할 수 있는 福祉概念 (welfare concept)<sup>4)</sup>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利益에 대한 설명은 事前的 혹은 事後的인 어느 概念으로 보든지간에 本質面에서 主觀的 概念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보통 그 期間을 통한 그의 실재적 消費 (配當)에 있어서 個人 (企業)이 생각하는 富에서 期初에 생각했던 富를 초과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利益은 損益計算書의 收益·費用의 對應에 의한 殘餘로서 보다는 貸借對照表의 資產評價에 대한 結果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富裕함 (being as well-off)란 期待되는 미래 總收入의 割引價値에 의하여 본래의 資本을 維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5)</sup> 그리고 「 알렉산더 」 (Alexander) 는 “well-offness” 를 主觀的 利率로 割引한 現金흐름 (cash flows discounted subjective rates of interest)<sup>6)</sup> 이라고 하여 現價에 의한 利益測定을 시사하고 있다.

3) J.R. Hicks, Value and Capital: An Inquiring into some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 Theory, 2nd, ed.,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50), p.172.

4) Edgar O. Edwards and Phillip 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p. 24

5) Emily Chen Chang, op, cit., p. 637

6) Sidney S. Alexander, “Income Measurement in a Dynamic Economy,” in Five Monographs on Business Income by the Study Group on Business Income (New York: AICPA, 1950), p.139.

그러므로 企業利益은 純財産 (net worth) 이 增加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것은 經濟的 富의 增大에 의한 利益 즉 實質利益 (real income)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을 企業의 觀點에서 본다면, 一定 期間의 企業利益은 期末에 있어서 未來의 富가 期初의 富를 超過하여 所有主에게 分配될 수 있을 정도의 富를 말한다.

現代經濟에서 企業은 貸借對照表에 의해 반영되는 經濟的 有機體라고 할 수 있다. 企業利益의 變化過程은 단순히 한 狀態에서 다른 狀態로 變하는 企業의 運動인 것이다. 만일 企業이 나은 狀態로 움직인다면 利益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그 反對 狀態로 움직인다면 損失이 發生한다고 할 것이다. 企業이 경제적으로 더 裕足하게 되기 위해서는 實質資產이 增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企業利益은 資本화된 價値의 增加가 있을 때만 나타나고, 그렇게 測定된 利益은 企業所有者가 원래의 企業資本을 維持하면서 消費를 위해 回收할 수 있는 最大值인 것이다. 이와같이 企業利益의 測定問題는 資産評價와 分離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2. 經濟學的 價値概念의 優位성과 問題點

經濟的 價値變化의 測定에 대한 接近方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쉬운 出發點은 經濟學的 價値概念을 이용할 수 있다. 概念的으로 가장 健全한 資産價値의 測定은 獲得될 未來現金흐름의 割引된 價値인 것이다. 여기서 營業權과 같은 無形固定資産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現價基準에 의해 計算된 개별 資産價値의 總計는 全體 企業의 未來總利益흐름에 대한 割引價値와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sup>7)</sup> 또한, 둘 以上の 資産으로 分離시킬 수 없고, 割引價値方法에 의해 이들 資産을 개별적으로 評價할 수 없는 單一製品을 生産하는 경우에도 問題點이 있다<sup>8)</sup> 는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全體의 割引價値概念으로부터 個別資産에 대한 割引價値概念으로의 移行段階는 일반적으로 概念的 健全性에서 유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段階는 客觀적으로 測定可能한 個別資産의 測定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在庫資産測定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繼續企業은 보통 그 部分들을 總計한 것 以上이다. 아직도 會計擔當者는 個別的인 部分을 測定하기 위한 選擇을 하지 않고 있다. 個別項目에 대한 測定規則은 企業全體로서 유용한 全般的 測定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sup>9)</sup>

7) Donald A. Corbin, "The Revolution in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2), p.629.

8) A. L. Thomas, "Precision and Discounted Services,"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962).

9) AAA, "A Discussion of Various Approaches to Inventory Measurement - Supplementary Statement No 2,"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4). p.701.

어떤 경우에, 企業全體 및 個別資産의 價値를 모두 포함한 割引된 未來現金흐름概念은 現金흐름을 豫測하고 적절한 割引率을 選擇하는데 대한 어려움 때문에 거의 客觀的基準에 따라 測定할 수 없다는데 일반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資産價値의 測定을 위한 實用的인 方法을 고안하기 위하여 概念的 健全性を 折衷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에 대한 解決策은 概念的으로 優越한 割引價値에 의해 客觀的으로 測定可能한 代替案으로서, 代替原價, 機會原價 혹은 純實現可能價値와 같은 단일 資産評價概念을 제안하고 있다. 거기에서 可能하면 모든 企業의 모든 資産에 許用되는 理想的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資産評價의 단일 代替概念이 認知할 수 있는 모든 資産形態나 모든 企業의 경우에 割引된 未來現金 흐름에 훌륭한 接近值를 제공할 것이라는 假定에는 非論理的인 理由가 있다.

어쨌든, 經濟學的 利益은 期待와 判斷이 특별히 강조되기 때문에 評價結果에서 생기는 利益은 客觀的이고 正確하게 計算할 수 없는 主觀的이며 漸定的인 利益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經濟學的 利益은 未來指向의 時間眺望에 의해서 推定된 測定概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不確實性이 介在되기 쉽다. 따라서 經濟學的 利益은 理論的으로 實質利益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妥當性의 一面을 갖고 있으나, 測定·報告에 있어서 期待收益 및 割引率에 대한 推定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限界를 갖고 있는 것이다.

## IV. 企業利益의 測定理論

### 1. 利益測定과 資産評價

利益報告의 第1次的 目的은 財務報告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有用한 會計情報를 제공한다는 會計目的과 일치한다. 그러나 보다 특수한 目的은 利益報告에 대한 보다 명백한 理解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헨드릭슨」은 財務報告의 모든 利用者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基本目的을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고 있다. ① 資本과 利益의 區別 ② 經營效率의 測定 ③ 未來 利益配當의 豫測 ④ 成果의 測定과 未來經營意思 決定의 指針. 以外の 다른 目的으로서 租稅基準, 企業規制手段, 資源配分 등의 利用을 들 수 있다.<sup>10)</sup>

10)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4th Ed. (Homewood: Richard D. Irwin, Inc., 1982), p.138.

그리고 「헨드릭슨」은 會計目的과 관련하여 資産評價의 目的을 情報利用者 중심으로 定義하고 있다. 그는 資産評價의 目的은 利益報告의 目的과 마찬가지로 單一의 目的이 없으며 單一目的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目的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누가 情報를 이용하는가의 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4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① 利益測定 方法으로서 評價： 對應過程의 段階로서 評價, 增價測定으로서 評價 ② 投資者에게 財務狀態의 報告： 貸借對照表를 두 損益計算書 사이의 連結段階로 모든 경우, 財務狀態를 豫測手段으로 보는 경우, 여러 持分所有主의 請求權에 대한 情報提供 ③ 債權者를 위한 評價 ④ 經營者를 위한 評價.<sup>11)</sup>

이와같이 여러가지 目的을 달성시키고 모든 會計擔當者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單一 利益概念이 없다는 사실을 많은 文獻에서 주장되고 있는 諸 見解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概念的 長點이 어떠한 經濟學的 利益概念도 折衷의인 概念을 통하지 않고는 널리 수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2)</sup> 그런데 「혼그렌」에 의해 제시된 折衷案은 實現主義의 重要性에 관한 論爭을 調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實現主義에 대한 解釋의 不一致가 經濟學的 利益概念의 광범위한 수용에 중대한 障礙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資産價値의 定義에 대한 不一致도 그와 같은 障礙가 되지 않을 것이다. 「實現主義 概念委員會」가 직적인 바와 같이, 代替原價, 機會原價, 純實現可能價値에서 많은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여기에서 「혼그렌」의 實現主義에 대한 折衷的 解釋과 資産의 折衷的 評價測定の 結合에 의한 資産評價와 利益測定理論을 살펴보려고 한다.

## 2. 「필립스」(Philips)의 增價利益

利益測定에 대한 單一基準을 提案한 「필립스」의 增價利益은 하나의 좋은 例가 된다. 그는 利益을 다섯가지로 分類하여 그 概念과 性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4)</sup>

① 心理的 利益 (psychic income) : 순수한 主觀的 利益으로서, 効用に 기초를 두며 消費와 분리되지 않고 存在한다고 생각되는 利益이다.

② 經濟的 現價利益 (economic present value income) : 非經濟的인 要素를 除外하여 客觀性을 갖는 利益으로서, 價値는 未來收益에 의존한다.

11) Ibid., pp.252~257.

12) Charles T. Horgren, "How Should We Interpret the Realization Concept?"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5), p.331.

13) AAA, "The Realization Concept,"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5), p.318.

14) G. Edward Philips, "The Accretion Concept of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963). p.16.

③ 增價利益 (accretion income) : 이것은 合理的인 客觀性을 갖고 證明될 수 있는 經濟力의 增加를 말하며, 經濟力의 測定은 일차적으로 市場價値에 의존한다.

④ 發生主義 會計利益 (accrual accounting income) : 豫測과 市場價値를 利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價値變化를 認識하기 전에 外部去來를 필요로 한다.

⑤ 現金主義 會計利益 (cash basic accounting income) : 엄격히 客觀的이며 現金에 의한 實現主義를 필요로 한다.

未來收入의 現價에 의한 經濟學的 利益과 대조적으로 增價利益은 經濟力의 測定에서 市場價値를 기초로 한다. 經濟學的 現價利益은 미래 不確實性 때문에 매우 主觀的이고 客觀性을 갖고 미래의 收入을 豫測하고 적절한 割引率을 選擇하기는 힘든 일이다. 여기에서 客觀的 測定可能性이 있어야 한다. 「필립스」에 의하면 增價利益은 經濟學的 現價利益보다 客觀的 眞實性이 있어야 하는데 增價利益은 發生主義會計보다 概念的 眞實性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필립스」는 客觀的 測定과 概念的 眞實性 사이의 갈등은 利益研究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原則的인 問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의 다섯가지 概念의 性格에서 볼 수 있듯이 概念的 眞實性은 配列된 順序에 따라 작아지며, 반면에 客觀的인 測定可能性은 配列順序에 따라 커진다. 또한 「필립스」는 會計擔當者들이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되는 利益概念에 대한 일반적인 同意에 이르지 못한다면, 會計理論과 實務의 改善은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增價利益이 모든 必要性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租稅, 國民所得測定, 그리고 經營意思決定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一般性을 갖는 概念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필립스」는 增價利益을 合理的인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될 수 있는 經濟力의 增加로 定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經濟力은 測定上 보다 큰 客觀性을 얻기 위하여 割引收益 보다 資産의 市場價値에 의해서 測定된다. 그는 增價利益보다 經濟學的 現價利益이 概念的 優位性을 認定하면서도, 增價利益은 測定上 훨씬 더 客觀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5)</sup>

客觀性을 근거로 增價利益概念을 正當化시키면서, 「필립스」는 經濟的 現價利益의 概念的 優越性을 통하여 論議하고 있다. 그는 市場價値가 없이는 經濟力이 존재할 수 없으며, 增價利益은 代替的 實務의 長點을 評價하는데 이용되는 規範的 基準이나 直接的 指針이 되는 理想的인 利益概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資産은 현재에 依存하는 것이지만 미래에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市場價格을 알고 있다면 資産價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資産價値는 獲得될 미래의 經濟用役뿐만 아니라

15) Ibid., pp.14~17.

이들 用役의 市場의 推定과 市場利益率에 의존한다.”<sup>16)</sup> 고 하면서 期待未來利益의 推定이 有用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測定하고자 하는 것을 代替하기 보다는 오히려 現行交換價値에 最善의 指針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市場價値와 增價利益에 대한 그의 주장은 經濟的 現價利益의 概念的인 優位性의 見地에서 正當化를 필요로 한다는 確信하에, 資源의 理想的 測定을 선언한 단지 現行交換價値에 접근할 目的에 있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sup>17)</sup>

「필립스」는 市場價値나 現行交換價値가 資産의 理想的인 測定으로 생각하면서도, 모든 種類의 資産을 測定하는데 단일의 價値基準으로는 不適切하다고 보았다. 그는 市場價値가 充分한 客觀性을 測定하는 것은 아니며, 原價(cost)는 價値의 가장 합리적인 接近直로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만일 어떤 種類의 資産이 즉시 販賣될 때 清算價値가 매우 작게되기 때문에 繼續企業으로서 企業價値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可能性은 清算價値와 市場代替原價가 會計擔當者들이 測定을 하는데 現行交換價値의 上下關係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필립스」에 의하면, “現行交換價値는 이러한 限界內에 있어야 하고 特定 時點에서 合理的인 사람이 이런 資産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金額을 概念的으로 나타낸다.”<sup>18)</sup> 고 한다. 그러므로 現行交換價値는 「필립스」에 의해 해석된 바와 같이 單一概念이 아니라 複數概念인 것이다.

### 3. 「에드워드스」(Edwards)와 「벨」(Bell)의 利益測定理論

利益測定과 資産評價에 대한 會計學的 接近을 시키기 위해 분석적으로 정교한 理論을 發展시킨 初期의 시도가운데 하나가 「에드워드스」와 「벨」의 利益測定理論<sup>19)</sup> 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립스」 및 다른 理論家들과 같이 「에드워드스」와 「벨」은 健全한 理論的 基礎에 의하고 實務에서 測定可能한 利益概念을 研究하였다.

그들은 利益極大化의 目的을 갖는 企業은 企業의 主觀的 價値를 極大化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主觀利益(subjective profit)은 附加的 資本投資 및 配當金支給을 포함한 主觀的 價値에서 期間的 變化를 말하며 經濟學的 現價利益과 같다. 그런데 그것은 특히 客觀的으로 測定될 수 없기 때문에 會計目的에 거부된다. 그들은 “보다 특수한 變化로부터

16) G. Edward Philips, "The Revolution in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3). p.701.

17) Ibid., pp. 707~708.

18) Ibid., p.707.

19) Edgar O. Edwards and Philip 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客觀的事象을 나타내는 것은 資産의 市場價値이다. 市場價値變化의 測定은 主觀的 推定에 의존할 수 없고 적어도 理論的으로 客觀的 基準에서 달성될 수 있다.”<sup>20)</sup> 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같이 「에드워드스」와 「벨」 그리고 「필립스」는 本質的인 同意를 하고 있으나, 「필립스」가 現行交換價値의 折衷的 概念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에드워드스」와 「벨」에 의한 심층적 分析은 現行市場價値概念의 模糊性을 해소시키고 있다. 서로 다른 18가지 市場價値의 概念 가운데,<sup>21)</sup> 現在形態로 즉각적인 販賣에 의해 實現될 수 있는 機會原價 (opportunity cost)와 原初形態의 資産을 현재 時點에서 再取得하게 될 때 지불가격인 現行原價 (current cost)는 實現可能利益 (realizable profit)과 企業利益 (business profit)의 概念을 發展시키는 基礎를 제공하는데 選擇된다. 期初 및 期末의 모든 資産과 負債가 實現可能利益의 경우에 機會原價로 評價되고 企業利益의 경우에 現行原價로 評價될 때, 實現可能利益과 企業利益概念은 一定 期間동안 附加的 資本收入과 配當金支給을 포함한 總資産價値의 變化를 나타낸다. 각 利益概念은 모든 資産의 評價基準으로서 單一的인 市場價値概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繼續性의 長點때문에 무조건 受容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單一 概念의 統一性을 찾을 필요는 없다. 實現可能利益과 企業利益의 活動利益 (operating profit) 構成要素도 이러한 統一性이 관찰되는 範圍에 따라 區分解釋이 可能하다.

實現可能利益의 要素인 實現可能營業利益은 機會原價에 基礎를 두기 때문에 企業이 短期活動의 경우에만 나타난다.<sup>22)</sup> 重要하고 高價인 固定資産의 現行代替原價 (current replacement cost)가 어떤 活動에서 長期收益性을 나타내는 狀態는 그 資産이 消滅될 때까지 實現可能利益이 계속적으로 獲得된다. 한편, 만일 活動過程에서 製造過程과 條件이 미래 계속될 것으로 期待되거나 보다 이상적으로 실재 製造過程이 狀態變化에 따라 利用可能한 代替案 가운데 收益性의 序列을 가릴 수 있다면, 企業利益의 要素인 現行活動利益은 長期收益性의 豫測指標로 해석될 수 있다.<sup>23)</sup>

이들 두가지 活動利益이 解釋은 意味上 單一性和 企業間 比較可能性이 資産評價의 統一基準에 의존하는 利益概念의 중요한 利點이 될 것이다. 그 두가지 概念은 意思決定 및 豫測目的을 위해 有用한 測定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 Ibid., p. 44.

21) Ibid., pp. 74 ~ 78.

22) Ibid., pp. 86 ~ 100. 實現可能活動利益 (Realizable operating profit) = 實現可能利益 (Realizable Profit) - 實現可能資本利益 (Realizable capital gains).

23) Ibid., pp. 99 ~ 120. 現行活動利益 (Current operating profit) = 企業利益 (Business profit) - 實現可能資本利益 (Realizable capital gains).

「 에드워드스 」와 「 벨 」은 會計資料의 內外部利用者가 繼續企業으로 企業의 展望에 일차적 관심을 갖는 理由 때문에 原則的인 利益概念으로서 企業利益에 중심을 두었다. 이를 인정한다면, 實現可能利益概念이 매우 限定된 有用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企業의 즉각적인 清算을 고려한 資產價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理論家들은 資產評價의 統一 基準이 실제 可能性 여부에 관한 問題를 論外로 하더라도, 企業의 長期利益潛在力의 가장 일반적인 測定으로서 現行活動利益을 無排判的으로 받아들임에 따른 두가지 중요한 「 이슈 」를 회피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 4. 豫測指標로서 現行活動利益

오늘날 많은 産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급속한 技術變化의 條件下에서 現行活動利益은 企業의 長期展望을 評價하는 手段으로서 有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誤導시킬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企業利益概念의 주요한 存在理由는 나쁘게 평가될 것이다.

長期利益潛在力의 豫測指標에 대한 必要性을 여기에서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投資意思決定과 管理統制上 投資家에 의한 公表된 財務諸表의 利用은 일차적인 重要性을 갖고 고려해야 한다는 1957年 美國會計學會의 見解가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sup>24)</sup> 證券을 사느냐, 保有하느냐 혹은 處分하느냐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投資家は 豫測과 企業間의 比較를 불가피하게 한다. 1964年 「 Long-Lived Assets Committee 」는 1957年 改訂報告書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지지하고 있다. “現行利益의 測定과 報告는 未來收益의 豫測에 대한 基準을 제공해야 한다.”<sup>25)</sup> 더구나 만약 減價償却資產과 其他 資產이 現行原價에 의해 기술된다면, “正常的 營業活動에서 생긴 利益은 … 正常的 營業活動으로부터 未來利益의 豫測을 용이하게 한다.”<sup>26)</sup> 그 委員會가 現行活動利益의 長點에 관한 「 에드워드스 」와 「 벨 」의 見解와 같이 한다는 證據는 批評的 分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에드워드스 」와 「 벨 」이 되풀이 確認한 바와 같이 現行活動利益이 動態的 經濟下에서 技術的 變化에 의해 製造方法에 따라 利益力을 다음과 같이 評價하고 있다. “現存 生産過程을 위협하는 現在나 未來의 技術變化가 企業에 의해 아직 채용되지 않는 生産시스템의 活動能率을 반영시켜 公式計定에 대한 責任을 會計擔當者에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런 技術變化의 영향은 現存 生産過程에서 얻어진 減小된 活

24) AAA, “Accounting for Land, Buildings, and Equipment - Supplementary Statement No 1,”

The Accounting Review, ( July 1964 ), p. 693.

25) Ibid., p. 693.

26) Ibid., p. 696.

動利益을 반영해야 된다.”<sup>27)</sup> 現存 生産方法에 대한 利益力の 評價는 다음 假定下에서 繼續企業으로서의 企業評價와 같다. 이들 假定은 ① 實存 生産過程과 遂行過程에서의 狀態가 未來 계속될 것으로 期待되거나, ② 實存 生産過程이 條件變化에도 불구하고 代替過程에 뒤이은 期間보다 높은 現行活動利益을 약속하는 경우이다.<sup>28)</sup>

이들 假定은 技術變化의 狀態에서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現行活動利益이 現存 生産方式을 評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 관심은 企業의 長期展望에 있지만, 陣腐化될 때 이들 長期展望은 現存 生産方式의 展望에 의해 제시될 특별한 理由는 없다. 만약, 「에드워드스」와 「벨」이 技術變化의 영향은 實存 生産過程에서 얻어진 減小된 活動利益을 반영해야 된다는 提案이 사실이라면, 實存 生産方法 아래 現行原價를 기초로한 現行活動利益은 企業의 未來展望을 크게 誤導시킬 것이라는 것이다.<sup>29)</sup> 舊式化된 生産方法을 轉換하기 전에 어떤 企業은 낮거나 否定的인 現行活動利益을 보이는 한편, 實現可能한 活動利益은 所有하고 있는 固定資産이 낮은 機會原價때문에 同一 期間동안 價値가 있게 될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生産方法의 轉換을 지연하는 것이 건전한 資本豫算法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非効率的인 管理에 따른 낮거나 否定的인 現行活動利益은 問題가 안된다. 「에드워드스」와 「벨」은 企業이 短期活動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長期利益潛在力の 評價가 이러한 環境下에서 實現可能利益의 報告로 轉換함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企業의 長期展望에 관심을 갖는 株主 등의 欲求는 技術變化가 중요한 곳에서 「에드워드스」와 「벨」의 利益概念가운데 어느것도 情報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範圍가 장기로 확대될 때, 企業利益의 利點에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다. 이들 중요한 利點 가운데 하나는 現行活動基準에서 利益報告가 企業 및 産業가운데 資本資源의 보다 能率的인 配分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潛在的 投資家は 長期活動利益 潛在力の 指標가 되는 實現可能利益을 해석함으로써 資本을 좋지 못한 企業에 投資할 것이다. 새로운 資源은 現行原價에 의해 獲得되어야 하기 때문에, 現行活動利益은 서로 다른 産業의 相對的 利益力の 潛在的 投機에 대한 보다 훌륭한 指標가 될 지도 모른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技術變化가 중요한 곳에서 민일 작고 否定的인 現行活動利益이 企業의 長期活動利益可能性의 指標로 될 것으로 믿는다면 資本은 좋지 못한 企業이나 産業에 쉽게 流入될 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長期展望에 대한 必要性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指標로서 企業利益의 長點이 강조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7) Edwards and Bell, op. cit., pp. 285 ~ 287.

28) Ibid., p. 99.

29) Ibid., p. 285.

## V. 利益測定理論의 評價와 折衷規則

### 1. 利益測定理論의 評價

實現可能利益 (realizable profit)이나 企業利益 (business profit)의 測定이 測定 그 자체를 위해서 혹은 經濟學的 現價利益의 優位性에 接近시키는 手段으로서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에드워드스」에 「벨」 그리고 「필립스」는 經濟學的 現價利益의 概念的 優越性的 提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根據를 제공하기를 바랐다.

企業資產의 市場價值變化가 理想的인 利益概念을 제공하는 經濟學的 現價利益의 接近值 以上の 것이라는 것이 「에드워드스」와 「벨」의 見解이다. 그런데, 經濟的 現價利益 (主觀的 利益)이 會計測定에 대한 理想的 概念으로 무시해야 한다는 理由에 따라 概念的 健全性에 의해 實務的 고려에서 생기는 混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 理由는 ① 客觀的으로 測定될 수 없고 ② 主觀的 測定은 企業의 活動計劃이 修正되어야 정상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0)</sup>

測定問題는 主觀的 利益의 概念的 長點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우기 둘째 理由의 否定的 意味는 일정기간 事前 및 事後 主觀利益 사이의 差異가 다음 期間의 期待變化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單一 期間동안 期待와 實在結果에 대한 差異의 測定을 거부할 수 있는 좋은 理由가 된다. 그러나, 최선의 期間利益概念으로서 事前的 主觀利益의 位置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增加利増은 稅務利益概念으로서 經濟學者들에 의해 提案되어 왔다. 그런데, 「필립스」의 궁극적 주장에 따르면, 市場價值가 없으면 經濟力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增價利益은 經濟學的 現價利益보다 概念的으로 더 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力의 見解는 繼續企業概念보다 清算概念으로서 價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繼續企業으로서 企業을 고려할 때, 繼續企業으로서 販賣價值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企業資產 繼續的 利用에 따른 未來利益의 흐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sup>31)</sup> 이점에 대해서 「에드워드스」와 「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市場價值에 대한 主觀的 營業權은 그 市場이 活動중에 있는 企業의 期待를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存在한다. 이들 主觀的 期

30) Ibid., pp. 43~44.

31) G. Edward Philips, "The Revolution in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3), p. 707.

待가 정확하다면, 이러한 營業權은 計劃의 結果에 의해 市場價値로 轉換될 것이다.”<sup>32)</sup>  
이와같이 經濟力은 市場價値에 반영되기 以前에 存在할 수 있다.

모든 資産에 대한 單一 評價基準의 條件을 무시함은 慣習의 高집에 의해서보다 經濟的 現價利益에 대해 더욱 가까운 接近値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認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예를들면, 資産評價의 畵引된 價値基準은 手票, 社債, 低當權, 어음의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基準은 資産이나 負債를 형성하는 權利나 義務가 정확하게 測定할 수 있는 貨幣收支의 흐름이나 現金價額으로 직접 轉換할 수 있는 利益의 形態가 될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現行代替原價는 가장 理想的인 特定 資産의 評價基準이 될 수 있는 한편, 機會原價는 다른 경우에 가장 理想的인 基準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條件은 機會原價와 現行原價가 대체적으로 적절한 경우의 例로서 「에드와드스」와 「벨」의 다음 설명에서 나타나고 있다.

“企業資産의 清算이 긴급하지 않는한, 現行原價 資料는 機會原價資料보다 企業에 더 有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企業이나 産業에 대해서 機會原價로의 轉換은 보다 有用한 資料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斜陽化되는 企業이나 斜陽化되는 産業에 속하는 企業과 특히 企業資産을 長期的으로 계속 이용하지 않기로 意思決定을 한 企業의 경우가 될 것이다. 現行原價基準이 損失을 가져온다면 이용하지 製造過程에 대해 短期的의 展望을 결정하기 위해서 機會原價로 轉換해야 된다.”<sup>33)</sup>

企業이 時代에 뒤떨어져 陣腐化된 設備資産을 代替시킬 것을 提案하고 있지만, 건전한 資本豫算基準 때문에 일시적으로 代替를 지연시키는 곳에서, 이들 資産에 대해 機會原價를 利用하는 것은 現行原價資料를 이용하는 것보다 企業利益, 管理의 効率性, 그리고 長期展望에서 좋은 반응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이점에 대해서 「在庫資産測定委員會」의 대다수는 代替原價 在庫資産測定에서 가장 좋은 利用可能한 일반적 基準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代替原價는 陣腐化, 腐敗, 그리고 損傷된 財貨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類形에서 現在條件에서 代替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頂目에 대한 評價基準으로 純實現可能價値를 권고하였다.<sup>34)</sup>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백히 해야 된다. 固定資産이나 在庫資産은 적절한 資産評價方法을 추구할 目的으로 單一 資産形態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分類라는 것이다.

32) Edwards and Bell, op. cit., p.48.

33) Ibid., pp. 102~103.

34) AAA, "A Discussion of Various Approaches to Inventory Measurement - Supplementary Statement No.2,"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4), pp. 700~708.

## 2. 折衷의 評價規則

資産評價上 問題의 解決策은 서로 다른 形態의 資産과 細部形態의 資産(different types and sub-types of assets)에 대하여 서로 다른 評價基準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앞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條件은 용이한 折衷案을 제안하고 있는데 資産評價는 다음 評價基準에 의해 指針을 삼을 수 있다. “충분히 確定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sufficiently definite verifiable evidence)가 하나 以上の 基準에 의해 資産評價를 적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용되는 그 基準은 資産의 未來現金 흐름의 割引價値에 가장 가까운 接近値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sup>35)</sup>

다시 말해서 만일 어떤 特定 資産에 대해서 충분히 確定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가 代替原價(replacement cost), 機會原價(opportunity cost) 혹은 純實現可能價値(net realizable value)에 의해 資産評價의 測定을 적용하는데 이용가능 하다면, 提案된 評價規則은 이용되는 그 基準이 그 資産에 대해 未來現金흐름의 現在價値에 가장 훌륭한 接近値를 받아 들인다는 사실을 規定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評價에 적용가능한 충분히 確定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가 없기 때문에, 營業權과 같은 資産을 허용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러한 評價規則은 충분히 確定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의 用語로부터 「혼그렌」의 認識規制을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以上の 評價規則은 사실상 認識規則을 活用하는 手段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모르고 있는 樣態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手段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의 問題가 제기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實行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假定은 利益決定에 관한 여러 文獻에서 토대가 되어왔다. 資産의 未來現金 흐름에 대한 간단한 現價計算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충분한 情報의 不在는 그것으로부터 얻게될 未來利益에 관해 이용가능한 情報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36)</sup>

“충분히 確定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라는 用語는 簡潔性を 결여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 評價規則은 一般原則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말은 만족스러운 것이다. 예를들면 그 用語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認定된 監査基準과 유사하다. “충분히 資格을 갖춘 證據力은 財務諸表에 관한 意見에 대해 合理的인 基準을 제공하기 위하여 檢査(inspection), 觀察(observation), 質問(inquires), 그리고 確認(confirmation)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sup>37)</sup>

35) Lemke, op. cit., p.40.

36) David Solomons, “Economic and Accounting Concepts of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1), p.379.

37) Walter B. Meigs, Principles of Auditing, Revised Ed.,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59), p.10.

「 마이그스 」(Meigs)는 監査基準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다. “美國公認會計士의 監査節次委員會에 의해 열거된 10 가지 基準은 適切한 計劃 (adequate planning), 적절한 內部統制의 評價 (proper evaluation of internal control) 充分히 資格이 있는 證據力 (sufficient competent evidential matter), 그리고 適切한 公示 (adequate disclosure) 등과 같은 測定上 無形的이고 主觀的인 用語를 포함하고 있다. 각 監査를 할 경우에 適切 (adequate) 하고, 適當 (proper) 하고, 充分 (sufficient) 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決定하기 위해서는 職業的 專門家의 判斷을 필요로 한다. 監査人の 判斷은 모든 調査의 여러가지 側面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監査는 機械的 方法으로 還元시킬 수 없는 것이다.”<sup>38)</sup> 따라서, 監査基準을 公式化하기 위한 監査人の 接近方法을 모방함으로써 評價理論의 進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 혼그렌 」은 어떤 測定可能한 經濟學的 利益에 接近하려는 會計擔當者들의 見解를 調整하는데 커다란 役割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그는 「 實現主義概念委員會 」보다 根據있는 正當性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 혼그렌 」의 結論 중에서 하나는 報告過程에서 客觀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어떤 價値變化를 포함하도록 광범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價値變化의 客觀的 測定을 위해 충분히 檢證可能한 證據의 定義를 필요하는 認識規則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價値變化가 어떻게 定義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提案을 하지 않았다.

「 램케 」는 價値變化의 測定을 위한 분명한 基準은 「 혼그렌 」의 認識規則을 보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 提案된 折衷案은 궁극적으로 會計實務에서 널리 수용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價値測定方法이 同一企業內의 서로 다른 資産이나 企業間 유사한 資産測定에 適用된다 하더라도, 測定方法의 選擇은 모두 企業에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單一原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 原則은 어떤 資産이 未來純利益흐름의 現價로 최선의 接近値를 나타내는 충분히 確定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基準에 따라 評價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

38) Ibid., p.11.

## VI. 結 論

現代會計學은 靜態的 會計에서 動態的 會計思考로 移行되어 오면서부터 企業利益의 測定은 資産評價와 관련하여 많은 論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傳統的인 會計利益은 人爲的인 會計構造에 의해 認識되어 왔다. 여러 會計環境의 變化에 따라 傳統的 會計構造에 의해 계산된 會計利益은 實質的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利益에 대한 會計情報은 社會적으로 커다란 役割을 하기 때문에 誤導된 會計情報을 제공할 경우에 經濟·社會的으로 미치는 혼란은 대단히 클 것이다.

어떠한 傳統的 會計利益의 問題點을 극복하고 企業利益이 會計에서 實質的인 의미를 갖는 會計情報을 제공하기 위한 實質利益에의 接近問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다. 未來의 會計趨勢는 實質的 情報提供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實質價値를 반영하고 있는 經濟學的 實現利益概念이 援用될 것이다. 資産評價와 利益測定理論의 發展은 두가지 주요 領域의 論爭에서 있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하나는 實現主義의 解釋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최적의 資産價値의 定義에 관련된 것이다. 이들 領域에서, 다양한 見解들의 갈등에 대한 折衷的 解決策은 충분히 確定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와 資産의 未來現金 흐름의 現價에 가장 가까운 接近値를 갖는 基準에 따라 각 資産을 評價할 수 있는 規則을 수용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다. 評價目的을 위한 檢證可能한 資料의 使用은 監査받은 財務諸表의 公正性에 信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提案된 評價規則의 중요한 缺陷은 서로 다른 企業의 유사한 例에서 사용된 유사한 資産이 企業間 比較可能性을 해치는 서로 다른 基準에 의해 評價될 수 있다는 것이다. 提案된 評價規則의 수용은 개별적인 資産이나 形態에 초점을 둠으로써 長期的으로 企業間 比較可能性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企業間 比較可能性의 缺陷에 대한 危險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附加的 條件으로서 그 基準의 完全公示가 모든 種類의 資産評價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